

風水의 原理와 住居立地 *

임 동 호 **

I. 緒	III. 風水地理와 살기 좋은 터
II. 살기 좋은 곳이 되는 조건	1. 風水의 論理와 방법론
1. 住居의 環境的 條件	2. 風水의 論理와 陽宅
2. 擇里志를 통하여 본 조건	IV. 結語

I. 緒

살기 좋은 곳은 어떠한 터인가?

사람마다 생활방식과 가치관 등이 달라서 살기 좋은 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설정하기는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물질 문명의 발달과 사회·정치적 환경에 따라 시대와 상황이 변화하여도 우리 인간이 살기 좋은 곳은 어딘가에는 있다는 전제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이러한 관점에서 살기 좋은 터의 조건을 하나의 전통사상으로 내려오고 있는 '風水'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風水는 바람과 물을 중심으로 하여 땅과 사람들의 생활을 이른바 '藏風得水'로서 이해하려는 것이다. 땅의 이치를 그 形態·形象 등 그 모양을 살펴 인간생활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슬기로운 삶의 지혜라 할 수 있다.

자연환경 속에 양질의 생명에너지(Vital-Energy, 精氣) 즉, 땅과 어우러진 바람과 물의 이치를 파악하여 인간생활에 보다 더 좋은 곳 [吉地, 明堂] 을 찾으려는 것이다.

* 이 논문은 1998년도 강원대학교 연구년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본 학회 이사

이러한 풍수가 그저 迷信이나 雜術정도로 무시되어 온 것도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좋은 터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과 부동산 투자를 위하여 보다 나은 곳을 찾고자 하는 마음과 더불어 전통사상에 대한 관심과 땅과 관련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데 삶의 풍수로서 그 논리와 체계를 이해하여 보다 나은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땅을 찾아 터잡고 집짓기에 활용하여 우리의 전통풍수가 깨달음의 생활풍수로서 그 맥을 함께 하는데 의의가 있다.

II. 살기 좋은 곳이 되는 조건

1. 住居의 環境的 條件

살기 좋은 곳은 어디인가? 인간은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어 냈지만 그러한 세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소설이나 상상의 세계에나 있었다.¹⁾

‘살기 좋은 곳’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시대와 지역, 문화는 물론 개인의 가치관 생활방식, 소득 등에 따라 다르다. 때문에 이로 인해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고 있다.

1) 自然環境的 條件

살기 좋은 곳, 삶의 터를 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조건으로서는 우선 그 기준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인간의 생활과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는 데다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²⁾

살기 좋은 곳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거의 위치와 터를 잡는데 있어서 일조, 통풍, 배수, 재해 등과 관련된 주요 자연환경은 다음과 같다.

(1) 地理的 位置와 氣候

위도와 경도에 따른 지리적 위치는 우선 기후와 밀접한 관련은 물론 육지와 해양 등의 분포, 인간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살기 좋은 곳을 결정하는데 있어

1) 武陵桃源이나 유토피아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2) 정량화, 계량화하기도 힘들지만 주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조건이다.

기후는 여러 형태의 일기변화를 장기적으로 평균한 상태를 뜻하지만, 일기의 변화를 천지의 조화, 우주의 섭리로 여긴 때도 있었다.

그러나 살기 좋은 곳을 찾기 위해서는 보다 개별적인 조건 ; 기온, 강수, 바람, 일조, 일사량 등 대기의 변화를 살펴 최적의 조건은 아니라도 적당한 곳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기후는 영향으로 각 지역마다 의·식·주 뿐만 아니라 풍속·관습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2) 地形

인간 삶의 터전으로써 지형은 재해로부터 인간을 보호 할 뿐만 아니라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각종 산물을 획득할 수 있는 곳이다.

한반도의 지형은 산지가 많은 반도로서 해양을 향해 남북으로 돌출되어 있는 북고남저, 동고서저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즉, 擇里志의 八道總論에서도 “우리 나라 지세는 동·남·서는 모두 바다이고, 북쪽 한길만이 여진과 요동으로 통한다. 산이 많고 평야가 적으며, 백성은 유순하고 조심하므로 기개가 웅졸하다.”하였으며, “지역이 길게 삼천리에 걸쳐 있으나 동서로는 천리도 못되어 큰 인물이 나지 못한다”고 하였다.³⁾

산을 풍수에서는 「龍」이라고 표현하고⁴⁾, 인간의 운명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生氣는 산맥을 따라 흐르며, 산맥의 흐름과 산세의 전개 유형에 따라 흘러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한다.⁵⁾

바다나 강, 호수 등은 인간과 생명 유지에 절대적인 물과 관계 있는 지형으로서, 물은 풍수에서도 산, 방위, 사람과 함께 기본적인 요소이다. 擇里志에서도 “무릇 물이 없는 곳은 살 곳이 못된다. 산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한다.” “물과 짝한 다음이라야 바야흐로 생성하는 妙함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물은 반드시 흘러오고 흘러감이 지리에 합당한 다음이라야 비로소 정기를 모아 기르게 된다.”고 하였다.⁶⁾

(3) 土質

3) 천리되는 물과 백리되는 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4) 산과 그 줄기를 포함하여 말한다.

5) 모이는 곳을 穴이라고 하며, 작은 곳은 墓터가 되고 큰 곳은 陽基, 陽宅으로서 복을 받는 좋은 터가 된다고 한다.

6) 卜居總論(地理), 凡無水之地自不可居山必得本配水然後方盡生化之妙然水必來去合理然後方成鐘毓之吉

땅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은 지역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다. 그 원인은 기후의 영향도 있지만 토질의 영향이 더 크다. 즉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지역마다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종과 품질 생산량 등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집짓기에는 砂土, 砂質土, 粘土 등의 토질은 괜찮아도 硬粘土, 腐植土 및 埋立地는 적합하지 않다. 또 地耐力는 암반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암질층이 강하고, 인공매립지는 지하수위도 높고 지내력도 약하므로 기초공사를 튼튼히 해야 한다.⁷⁾

2) 社會環境的 條件

살기 좋은 곳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자연환경적 조건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인간에 의해 조장·형성된 갖가지 형태의 사회환경적 조건이 있다.

그런데 인간의 생활과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는 주거환경은 공기가 맑고 조용하며 전기, 상·하수도, 가스등의 문화적 설비가 완비되고 통근, 통학, 쇼핑 등의 일상생활도 편리한 것이 요구된다. 住生活은 좋은 자연적 환경 뿐만 아니라 완비된 주변의 편의·편익시설을 기초로 가정의 내부도 아름답고도 조화롭게 꾸며져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조건들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도시 및 인구의 규모, 특성, 교통·통신, 산업, 경제의 발달, 상·하수도, 전기, 가스의 보급, 교육, 문화, 의료 등의 후생, 복리, 공공, 행정시설, 유해시설, 업소의 존재, 법률, 행정적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생활과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는 이러한 조치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각각의 조건들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판단을 어렵게도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도 한다.

인간의 생활과 삶의 터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先人들의 자세와 현재생활을 수용하면서 생각의 폭을 넓혀 자연환경적조건은 물론 그 밖의 상황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擇里志를 통하여 본 條件

擇里志는 李重煥(1690~1752)의 저서로서, 四民總論, 八道總論, 卜居總論, 總論으로 나누어져있다. 사민총론에서는 사대부의 신분이 農·工·商으로 달라지게 된 원인과 내력을 팔도총론에서는 국토의 역사와 지리를 도별로 나누어 그 지역의 특성을 북거총론에서는 사람이 살만한 조건을 들어 설명하였다.

7) 朴棟銓, 住居學, 技文堂, 1995, p.p.104~105

즉 전국의 地勢, 地理, 産物, 人物, 事件을 서술한 人文地理書로서, 팔도총론과 북거총론이 중점을 이루고 있지만 살기 좋은 곳의 조건과 밀접한 부분은 북거총론이다.

대체로 보아서 살터를 잡는데는 “「地理·生利·人心·山水」의 네 조건을 들고 한가지라도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다”라고 하였다.⁸⁾

1) 地理

살 만한 곳을 택하는데 있어서 ‘地理’를 첫째로 꼽았다. 물론 여기에서의 「지리」는 현대적인 의미의 지리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전통적인 지리로서 풍수지리를 뜻한다.

그러므로 지리를 논하려면 먼저 水口를 보고 [先看, 水口], 다음 들의 형세 [野勢] 를, 다음은 산의 모양 [山形] 을 보고, 흙의 빛깔과, 땅속의 물과 흐름 [水理] 을 본다. 다음 앞에 멀리 있는 높은 산 [朝山] 과 앞물 [朝水] 을 본다.

수구가 영성하고 널따랗기만 한 곳에는 비록 좋은 농경지와 집터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저절로 흩어져 없어진다. 그러므로 집터를 잡으려면 반드시 수구가 닫힌 듯하고, 그 안에 들이 펼쳐진 곳을 눈여겨보아야 한다.⁹⁾

그러나 산중에서는 수구가 닫힌 곳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들판에서는 수구가 굳게 닫힌 곳을 찾기는 쉽지 않다. 아울러 해와 달과 별빛이 항상 환하게 비치며, 바람과 비, 차고 더운 기후가 고르게 알맞은 곳이면 된다. 비록 높은 산중이라도 들이 펼쳐진 곳이라야 살 만한 터가 될 수 있으며 主山이 수려하고 단정하며 청명하고 아담한 곳이 좋다. 뒤에서 내려온 산맥이 끊어지지 아니하면서 들을 건너다가 갑자기 높고 큰 봉우리로 솟아나고 支脈이 감싸 돌면서 골판 [洞府] 을 만들어 궁내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나며, 주산의 형세가 樞重하고 豊大하여 겹겹이나 높은 궁전 같은 곳이면 더 좋다.

사방에 산이 멀리 있어서 평탄하고 넓으며 산맥이 평지에 뻗어 내렸다가 물가에 그쳐서 들판 터를 만든 곳은 그런 대로 살만한 터이다.

거리는 곳은 來脈이 약하고 둔하면서 생생한 기색이 없거나 혹은 산 모양이 부서지고 비뚤어져서 길한 기운이 적은 곳이다.¹⁰⁾

시골생활은 토질이 砂土로서 굳고 촘촘하면 우물물도 맑고 차 살만한 곳이다.¹¹⁾

물이 없는 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된다.¹²⁾ 산에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하지만 흘러

8) 大抵卜居之地理爲土生利次之次則人心次則山水四者缺一非樂土.

9) 陽基必求水口關鎖內開野處着眼.

10) 땅에 생생한 빛과 길한 기운이 없으면 人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11) 붉은 찰흙과 검은 자갈이든지, 누런 진흙이며 죽은 흙으로서 살만한 곳이 못된다.

12) 風水에서 물은 財緣을 관장하고 있어서 큰 물가에 부유한 집과 큰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오고 나감이 지리에 합당한 다음이라야 비로소 정기를 모아 기르게 된다.

비록 산중이라도 또한 시내와 澗水가 모이는 곳이라야 여러 대를 이어 가며 오랫동안 살 수 있는 터가 된다. 그렇지만 터에서 보일 정도로 떨어져 있는 산 [朝山]에 암석으로 된 추악한 봉우리가 있든지 또 비뚤어진 외로운 봉우리, 무너지고 떨어지는 듯한 형상, 엇보고 넘겨보는 모양 등 이상하고 괴이한 바위가 산 위어나 산밑에 보이든지 긴 골짜기로 된 沖砂가 전후 좌우에 보이면 살 수 없는 곳이다.

산은 멀리 있으면 맑게 빼어나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맑고 깨끗하여 기쁨을 느끼고, 울퉁불퉁한 밍살스런 모양이 없으면 길한 곳이다.

또한 터너머 부근의 물 [朝水]은 작은 냇물이나 시냇물은 거꾸로 흘러드는 곳이 길하다. 그러나 큰 냇물이나 강은 逆으로 흘러드는 곳은 좋지 못하다. 흘러드는 물은 반드시 坐向과 陰陽이 이치에 합치되어야 하지만, 대체로 꾸불꾸불하거나 길고 멀게 흘러 들어오면 길하나 일직선으로 곧게 들어오는 곳은 좋지 못하다. 때문에 터를 잡아 집을 지어 자손 대대로 전할 계획을 하려고 할 때는 먼저 地理를 살펴야 한다.¹³⁾

2) 生利

이 세상에 있어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자를 보내는 데도 모두 재물이 소용된다. 그런데 재물은 하늘에서 내리거나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땅이 기름진 곳이 제일이고, 배와 수레와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어 있는 것을 서로 바꿀 수 있는 곳이 그 다음이다.

땅이 기름지다는 것은 토질이 오탁과 목화 가꾸기에 알맞은 곳을 말한다.¹⁴⁾

물자를 교류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 나라는 산이 많고 들이 적어서 수레가 통행하기 어려우므로 상인들은 말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들어 이익이 적으니 배로 운반하는 것이 편리한 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재물을 모은 자도 있다고 하였다.

3) 人心

孔子께서 “마을 인심이 착한 곳이 좋다. 착한 곳을 가려서 살지 아니하면 어찌 지혜롭다 하라” 하셨다. 옳은 풍속을 가리지 아니하면 자신에게만 해로울 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그르치게 될 수도 있으니 살터를 잡음에 있어서 그 지방의 풍속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13) 즉 水口, 野勢, 山形, 土色, 水理, 朝山, 朝水가 주 내용이다.

14) 농경사회에서의 수익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그 수익이 다르기 때문인지 이중환은 택리지 전편을 통해서 가장 힘을 기울인 듯 각 도별로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풍속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평안도는 인심이 순후하기가 첫째이고, 다음은 경상도로서 풍속이 진실하다.” 등 팔도 인심을 비교하여 기록하였다.¹⁵⁾ 그러나 이것은 서민의 인심·풍속을 논한 것이다. 또 사색당쟁의 원인과 경과를 살펴 인심이 정상이 아님을 통탄한 후 오히려 “사대부가 없는 곳을 가려서, 문을 닫고 교제를 끊고 홀로 자신을 착하게 하면, 비록 농·공·상이 되더라도 즐거움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와 같으면 인심의 좋고 좋지 못함도 또한 논할 것이 못된다.” 하였다.

4) 山水

집 근처에 유람할 만한 산수가 없으면 정서를 함양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산수가 좋은 곳은 生利가 薄한 곳이 많으나 땅이 기름진 곳을 가려 살면서 십리 거리나 혹은 반나절 길 되는 안쪽에 산수 좋은 곳을 알아 생각이 날때마다 마음대로 가서 시름을 풀고 돌아오는 것이 좋다.”고 하여 生利를 중요시하면서, 각 처의 살 만한 곳, 도움이 될 만한 곳을 비교하였다.

산수는 정신을 즐겁게 하고 감정을 和暢하게 하는 것이다. 살고 있는 곳에 산수가 없으면 사람이 촌스러워진다. 산수가 좋은 곳은 생리가 薄한 곳이 많다. 그러나 사람은 산수만 좋다고 삶을 영위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기름진 땅과 넓은 들에 지리가 좋은 곳을 가려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자손 대대로 이어 나갈 만한 곳이다.¹⁶⁾

Ⅲ. 風水와 살기 좋은 터

風水를 국어사전¹⁷⁾에서 찾아보면 “①음양오행설에 기초하여 민속적으로 지켜 내려오는 地術, 집터, 뒷자리의 방위, 지형 등의 좋고 나쁨이 사람의 화복에 절대적 관계를 가진다 함. ② 地官이라고 이어, ‘風水地理’는 “풍수지리설 地理, ‘風水地理說’은 지형·방위를 인가의 길흉화복과 관련시켜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데 적당한 장소를 구하는 이론. 풍수지리, 풍수설”이라고 하였다. 기타 다른 사전에서도 거의 같은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풍수지리는 인간이 터를 잡고 주거생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좋은 곳을 찾고

15) 我國八道中 平安道人心醇厚爲上次則慶尙道風俗.

16) 李重煥, 擇里志(李翼成譯), 을유문화사, 1995, p.7

17) 금성뉴에스 국어사전, 금성출판사, 1993, p.2037

자 하는 생존 본능의 노력에서 나온 생활의 지혜이다. 즉 인간이 地表를 占有하여 땅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물론 죽어서도 그들이 생활하는 터인 「땅과 적용」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 슬기롭게 「땅의 이치」를 깨달아 나름대로의 '좋은 자리 [터, 吉地, 明堂]'을 차지하려고 한 것으로부터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자연환경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지표공간을 예의 주시하면서 주요인인 바람 [風] 과 물 [水] 을 중심으로 어떤 형태를 갖춘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1. 風水의 論理와 方法論

가능한 좋은 터를 찾아서 생활의 터전으로 삼으려는 기본적인 욕구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기반은 陰陽五行說이다.¹⁸⁾

1) 풍수의 기본논리와 목적

풍수는 전술한 바와 같이 땅을 의지하고 살던 옛 사람들이 보다 더 좋은 터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발전하여 다른 요소들과 어울려 복잡한 논리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바람 [風] 과 물 [水] 을 중심으로 한 자연적 메카니즘에 대한 논리가 기본을 이루고 있으나 민속적 차원에서는 자연현상의 敬畏, 追吉避凶을 추구하는 인가의 심성과 더불어 相地術로서 孝의 관념이나 땅에 대한 土俗的인 샤머니즘 등과 결합되어 때로는 이기적인 俗信으로 진전되기도 하였다.

전통적인 풍수서에 나타난 풍수사상의 체계로서 그 구성의 근본은 龍, 穴, 砂, 水, 方位가 핵심이지만 어느 한 가지도 완전하고 통일된 내용이 아직도 없다.¹⁹⁾

그러나 풍수의 목적은 地氣를 찾아 이른바 生氣를 感應받음으로써 避凶發福할 수 있는 眞穴을 찾는 데 있다. 즉 땅속의 生氣가 가장 충만한 곳이 眞穴이 되고, 이 진혈을 찾는 것, 생기가 머문 곳을 찾는 원리가 곧 풍수의 원리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진혈을 찾는 과정과 방법을 추구하는데 기본원리는 陰陽五行說을 바탕으로 하여 關山尋穴을 目力裁定하여야 한다. 이때 전체의 氣象과 形象을 본후 主山이 될 만한 곳의 山頂에 올라가 주변의 에너지-地氣와 水氣의 흐름, 바람의 내왕, 天氣의 照諒, 方位의 특성을 중심으로 하지만 바람과 수기의 변화를 주로 하고 있는 것이다.²⁰⁾ 땅

18) 村山智順(崔吉城 옮김), 朝鮮의 風水, 민음사 1990, p.130

19) 때문에 '풍수는 미신이다. 잡술이다.'라는 소리도 듣고, 연구해 보려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부딪치며, 어느설을 믿어야 하는지 당황하게도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오랜 연구와 현장 경험을 필요로 한다.

20) 이때 경험도 이론도 중요하지만, 어떤 느낌 [氣感] 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감을 말로 표

의 생기를 찾을 수 만 있다면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을 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풍수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어느 한 두가지의 논리를 강조·중시하기도 한다.²¹⁾ 그러나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분석과 종합적인 관찰이 필요한 것이다.

2) 風水의 方法論

풍수의 구성은 穴을 중심으로 生氣를 찾는 방법으로는, 이른바 看龍法, 藏風法, 得水法, 定穴法, 坐向論 등의 경험과학적인 방법론과 地氣가 어떤 人事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게 되는가 하는 同氣(親子)感應論, 所主吉凶論, 形局論등의 氣感應的 認識方法論이 있다.

(1) 經驗科學的 方法論

① 看龍法

풍수가 땅의 地氣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때문에 地氣가 흐르는 통로가 산이라고 하고, 표출되는 事象인 산을 可視的인 실체로서 풍수에서는 ‘龍’이라 한다.²²⁾ 용은 산을 총칭하는 말로서 그 龍脈의 흐름이 좋고 [吉], 나쁨 [凶] 을 祖山으로부터 穴場에 이르기까지 살피는 것을 「看龍法」이라고 한다.

龍脈에 감추어진 산의 정기 즉 地氣가 遊行하는 脈이 있어 看龍에서는 龍을 體로, 脈을 用으로 하여 生氣를 찾는다. 그러나 龍은 그 형체가 현저하지만 脈은 龍의 속에 숨어 있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때문에 看龍의 방법은 그리 쉽지는 않다.²³⁾

산의 모양이나 형세로서 풍수를 몰라도 아는 듯한 것은 주위와의 조화와 균형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생기가 충만하고 그 형상이 수려함은 누구나 안정·편안한 감을 느낌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② 藏風法

터 [穴場, 穴星] 주변의 지세에 관한 풍수이론을 통칭하여 「藏風法」이라고 한다. 풍수이론서의 최고의 고전인 藏經²⁴⁾에 의하면, 풍수는 生氣를 타는 것이다. 즉 “葬者乘生氣也”라 하였다. 사람은 죽으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데, 좋은 땅인 「眞穴」에 묻히면 땅속에 흐르는 좋은 기운인 생기를 받는다. 生氣는 바람을 타면 흩어

현하기가 어렵고 직관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러나 氣는 터득하는 것이다.

21) 크게 形氣論, 物形論과 理氣論으로 나누기도 한다.

22) 천태만상의 산의 모습과 그 변화가 마치 용과 같다고 하여 그 종류와 형태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다.

23) 풍수의 龍이 산을 가리키는 분명하지만 그 산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과는 다르다.

그러나 많은 관산으로 산의 정기와 기는 느낌으로 알수 있다고 한다.

24) 중국 쑤나라의 郭璞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며, ‘藏書 또는 錦囊經이라고도 한다.

진다. 생기를 타기 위해서는 생기가 멈추고 모여야 하는데, 氣는 바람을 타면 흩어져 버리고 물에 닿으면 머문다는 것이다.

이는 바람은 땅속에서 발생하는 생기를 흩어버리므로 생기를 포용하고 陰陽의 원기를 지닌 바람을 모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풍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²⁵⁾ 그러므로 풍수의 術法에 의하면 「風水之法得水爲上藏風次之」라 하였다.

장풍법은 陰來의 땅과 오가는 陽水의 물로서 '局'을 이루며 凸의 형태로 다가오는 龍을 凹형의 지세로 받고, 局의 중앙부위에 穴을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穴은 사방을 산으로 둘러싸고 있는 凹형의 중앙분기에서 陰陽양원을 沖和하게 하여 생기가 充溢하도록 하는데 있다.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穴주위의 산세를 풍수에서는 '砂'라고 하고, 장풍법의 연구는 우선 이 '砂'를 고찰해야 한다.²⁶⁾

즉 砂는 局穴의 주위를 둘러싼 생기의 멈춤·모임을 촉진하고 그 순화를 돕는 穴 주위의 前·後·左·右에 있는 산 및 언덕을 일컫는 이른바 朱雀, 玄武, 靑龍, 白虎의 四神砂를 중심으로 하여 五星 및 官, 鬼, 禽, 曜 등 술법상으로는 매우 복잡하지만 吉凶판단을 환경지각적인 影像을 인사에 유추시킨 것으로서 聯想하면서 그 형상을 파악한다면 쉽게 연결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체로 穴을 둘러싸고 있는 산세가 둥글고, 단정하고 아름답고, 밝고, 맑고, 유연하고, 보기 좋고, 有精하면 吉格이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凶格이 된다는 것이다.

즉 좋아 보이고 주위와의 지세가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화합하는 형세는 길하다고 보며, 이러한 곳에 생기가 충만한 좋은 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③ 得水法

풍수에서 형세를 논함에 있어서 山水가 相配해야 陰陽을 이룬다.²⁷⁾ 산수가 서로 어울리면 음양이 화합하고, 음양이 만나면 생기를 이루기 때문에 산수가 서로 만나 조화를 이룬 곳을 좋은 터라 한다.

물은 元氣의 根源으로서, 산과의 관계에서 산은 陰이며, 물은 陽이다.²⁸⁾

산은 천리의 근원을 바라보며, 물은 천리의 끝을 본다고 하여, 산은 높은 곳이 좋고 물은 질은 곳이 좋다고 하였다.

산은 起伏을 그 數와 節로 하기 때문에 길흉은 그 高鼻, 厚薄, 大小에 따라 정해지

25) 불어오는 바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불어나가는 바람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을 저장한다고 하여 防風이라 하지 않고 藏風이라 한다.

26) 옛적에 풍수를 전수 받을 때 산천의 형세를 설명할 때 주로 '모래'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砂'라 한다고도 한다.

27) 음양론에서는 음이나 양은 홀로 생성하지 못하고, 음양이 만나야 조화를 이룬다고 한다.

28) 산은 본래 그 성질이 靜이며, 물은 動이다. 그러므로 그 본성으로도 산은 陰이고, 물은 陽이라 할 수 있다.

나 물은 흐름의 曲折로 하기 때문에 長短, 數量, 深淺, 緩急에 의해 그 길흉이 정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산은 吉方에서 오는 것이 좋으며, 물은 凶方으로 사라지는 것이 좋다.²⁹⁾ 하지만 물이 오가면서 산을 만나지 못하면 산의 길함은 성립되지 않는다.

풍수에서는 그 성국을 이루는 물이 흘러오는 것을 '得', 흘러나가는 것을 '破'라고 하며,³⁰⁾ 그 성격은 動的이지만 靜的인 것을 요구한다. 때문에 지나가는 물이 훤히 보여서는 안되고, 常樂할 수 없으며 음양상화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은 용의 혈맥으로서 得水는 못 산에서 물이 모이는 곳이 좋고 그 물은 산이나 도시의 중앙·국혈을 향해 求心的으로 모이는 곳에 정기가 있다. 그러므로 산수가 어울리면서 생기를 모아 왕성하고 충일하게 하며 응결조화가 행해지기에 적합한 곳이 좋은 터가 되는 것이다.

④ 定穴法

穴이란 풍수에서 核이 되는 곳으로서, 용맥 중 음양이 合局되고, 산수의 정기가 응결된 곳을 말한다.

그러나 局이 형성되었다고 穴이 어디에나 있는 것은 아니다. 穴은 특정한 곳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찾아내는 일이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전술한 看龍法은 生氣가 충만한 眞龍〈生龍, 進龍, 強龍, 順龍, 福龍〉의 선별이며, 藏風·得水法은 성국의 조건이며 結穴의 선행조건인 것이다.

즉 眞穴이 되기 위해서는 眞龍이어야 하고, 장풍·득수가 모두 術法에 맞아야 하며, 定穴이란 畫龍點睛의 순간이라 할 수 있다.

혈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생기의 所應을 받을 수 없게 되어 生龍은 死龍이 되고 「吉局」은 「凶局」이 된다.

穴形은 千態萬象으로 그 모양이 매우 다양하지만 陰陽論에서 말하는 太極, 兩儀, 四象의 관념으로서 窩, 鉗, 乳, 突의 四格이 기본이다.³¹⁾

그러므로 실제로 穴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局을 이루고 있는 穴이라고 판단되는 지점 주변 전후좌우의 산세와 수국을 살펴야 한다.

⑤ 坐向論

29) 산이 길방에서 일어나면 복록을 만나게 되고 물이 흉방으로 가면 복록이 오래 머무른다고 한다.

30) 물을 얻는다는 의미로도 「得」이라고 하며, 內水를 처음 본다는 의미로서 「見」이라고도 한다. 또 물이 나간단, 깨진다는 의미로 「破」라 하며, 물이 흘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不見」이라고도 한다.

31) 穴의 유형은 四象을 기본으로 36形, 82邊, 365體, 389象등의 형태로 파생된다고 한다.

坐向이란 풍수에서 穴을 중심으로 등진 방위에서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방향이란 뜻으로서 일반적인 方位의 개념과는 다르다. 즉 坐向은 穴의 뒤를 「坐」로, 앞쪽 정면을 「向」으로 한 穴에서의 위치로 본 方向을 말한다.

어떤 지역의 특징지점인 穴의 좌향은 局地的인 기후현상으로서 日照 및 日射量, 風向, 風俗, 降雨, 계절의 변화 등의 물리적 특징에 의하여 결정되는 방위와 동양의 상징적 의미 및 이와 관련된 관념화된 방위로서 구분할 수 있다.³²⁾

풍수에서의 좌향은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이어서 어느 한 방법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복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나침반³³⁾을 이용한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방위의 명칭은 易을 중심으로 한 天盤, 地盤, 人盤으로 구별하고 다시 64爻, 60甲子를 붙이고 28宿을 배열하여 天度數를 배당하여 分度를 마련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실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24방위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24방위를 각각에서 고정된 吉凶이 배속되어 있지는 않고 穴주위 砂에 따라 吉凶이 달리 나타날 수 있는 상대적이란 것이 해석을 난해하게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坐向해석은 易과 陰陽五行을 自然之道로서 여하히 지표현상과 연결시키며, 또 하나의 지표면상이라는 可視的實體를 어떻게 吉凶을 판단할 것인가에 주어져야 한다.³⁴⁾

坐向論은 풍수의 본질인 趨吉避凶하자는 것과 占術등의 運命術 및 易術과 결부되어 吉凶判斷術로 정착되어 버린 듯하다.³⁵⁾

(2) 氣感應的 認識論

① 同氣感應論

살아있는 사람의 氣는 그대로 받으며 그 사람의 것이 되지만 죽은 사람의 氣는 사람의 뼈가 땅속에서 받은 氣는 자신의 분신인 동기 또는 자식에게 氣를 보낸다는 논리다.

이는 중국 未央宮銅鐘의 고사 “是以銅山西崩靈鐘東應”에서 연유된 것으로 西蜀에 있는 銅山이 붕괴하니 멀리 떨어진 동쪽의 未央宮에 있는 鐘이 감응하여 울렸다는 것이다.³⁶⁾ 즉 동산에서 캐어낸 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同質의 氣가 서로 감응을 일으켜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만물의 靈長인 사람은 祖上과 後孫사이에도 감응이

32) 물리적 특징에 의하여 결정되는 방위를 「絕對向」이라고 부른다면 절대향 이외의 조건으로 성립되는 것은 「相對向」이라고 할 수 있으며 社會性的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다.

33) 羅經 또는 佩鐵이라고 한다.

34)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93, p.p.177~178.

35) 풍수뿐만 아니라 奇門遁甲과 어울려 때로는 方位術로 발달하였다.

36) 皇帝가 東方朔에게 종이 저절로 울린 원인을 물었을 때 한 담이라고 전한다.

나타난다는 것이다.

때문에 氣가 모이는 땅위에 집을 짓고 살면 땅밑 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논리로서, 산 사람의 터잡기는 좋은 땅에 집을 짓고 살면 잠잘 때 자연스럽게 기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吉地, 明堂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땅속 부모나 조상 遺骸의 기는 자식과 후손, 同氣에게 전달되어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② 所主吉凶論

明堂·吉地는 반드시 積善, 積德을 하여야 차지할 수 있다는 풍수사상의 윤리성·도덕성을 강조한 것이다. 당대 최고의 地師가 잡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 땅을 쓸 사람이 善行을 하지 않았다면 虛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조상의 유골을 한 밀천 삼아 온갖 술수를 다하여 진혈을 구해 본들 그것은 헛일이라는 것이다.

또 所主吉凶論에서는 땅을 쓸 사람의 四柱와 그 땅과 相生·相合되는지도 따진다. 이는 四柱命理學과 風水와의 만남으로 地人相關說로서 天이 합쳐 天·地·人의 合一에 이른다고 한다.³⁷⁾

③ 形局論

형국론은 地勢나 穴場을 전반적으로 개관할 수 있는 술법이다. 풍수에서의 산; 龍, 砂, 穴등의 생긴 모습이나 형세를 인간이나 동식물 또는 자연물 인공물 등 특정 물체와 비유한 것으로서 이는 우주의 萬物, 萬象이 有理, 有氣하며 有形·有象이 내재해 있다고 보는 관념을 원리로 하고 있다.

즉, 萬物이 서로 다른 것은 그것이 지니고 있는 氣의 차이 때문이며, 이 氣의 象이 形으로 나타나는 만큼 「形으로서 物의 元氣」를 알아 낼 수 있다는 想念이 形局論으로 발전한 것이다.

산의 형태를 주위의 각 산들과 결부되어 많은 종류의 유형으로 구분하지만 풍수를 잘 모르는 사람도 때로는 쉽게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산의 모습이나 지세는 보는 입장·위치에 따라 달리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踏山하면서 吉地를 相占하는 과정에서 직접 吉凶을 판별하기도 한다.

2. 風水의 論理와 陽宅

우리 땅에서 인간을 자연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원만한 삶을 추구하려는 자세가 어느덧 자연을 이용하여, 삶의 방편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37) 이때의 天은 擇日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변함으로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였다.

이러한 때 우리 고유의 토지관과 자연관이 어우러진 풍수의 논리로서 살기 좋은 곳은 어떠한 곳인가?

풍수는 산사람의 주거 장소를 선택·결정하는 陽宅과 죽은 자의 뒷자리를 마련하려는 陰宅으로 크게 구분하지만 양택과 음택은 穴場의 넓고 좁은 것을 빼고는 근본적인 차이는 별로 없다.

1) 좋은 터의 조건

(1) 龍과 形局이 좋은 터

① 龍이 좋은 터

風水의 龍이란 전술한 바와 같이 산의 정상 [祖山] 으로부터 穴場에 이어지는 산줄기를 말한다. 이러한 龍이 인간생활과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는 아직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산과 산줄기는 인간의 환경 심리적인 측면에서 산세가 크고 힘이 있으며, 변화가 충만하고 질서정연하며 생기 발랄한 용을 좋은 용; 生龍, 強龍, 進龍, 順龍, 福龍 등을吉한 용이라고 한다.³⁸⁾ 이러한 산세를 생활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고 굳세며, 질서정연하고 생기발랄한 심성과 행동을 갖는다고 한다.

② 形局이 좋은 터

山川의 形象을 이른바 形局이라고 하며, 산천의 형상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氣象이 내재해 있어서 이러한 곳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갈 때, 그대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의 형상은 「木火土金水」의 五形으로 나누고 星, 體, 山 등을 붙여 부른다.³⁹⁾ 또한 산형의 모습에 따라 淸, 濁, 凶으로 그 格을 분류하고 있다. 이를 기본체계로 주위의 산들과 결부되어 수없이 많은 형국을 파생시키고 있다. 때문에 형국은 산천의 형세를 유추하여 판단함으로써 山勢에 따른 길흉을 쉽게 이해 할 수는 있어도, 形과 象을 보는 방법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다.⁴⁰⁾ 따라서 살기 좋은 곳의 형국을 볼 때는 주변의 산세와 수세, 지형·지물 및 이들의 균형과 조화를 살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바람 [風] 과 물 [水] 의 좋은 터

38) 李台熙, 십승지, 참나무, 1998, p.p. 60~63

39) 예를 들면 木星山, 木體山, 木山 등으로 부른다.

40) 사람, 동·식물 등의 모습과 비유한, 장군대좌형, 목녀단장형, 와우형, 맹호출립형, 연화부수형, 매화낙지형 등으로 그 형국을 표현하고 있다.

“氣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에 닿으면 머문다.”⁴¹⁾는 풍수의 논리에 따라 藏風과 得水를 명당, 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바람을 저장하는 산세 및 지형의 짜임새는 혈장을 중심으로 하여 전후좌우 또는 동서남북으로 펼쳐진 四神砂; 靑龍, 白虎, 朱雀, 玄武의 형세로 판단한다.

청룡은 꿈틀꿈틀 용처럼 생기가 있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백호는 길들어 머리를 숙이는 듯하거나 옆드린 것처럼 보이면서도 품위가 있고 온화한 것이, 주작은 날아갈 듯 춤을 추는 모양을 하면서도 端正, 淸秀해야 하고, 현무는 머리를 드리운 듯하면서 머리를 내밀고 앞으로 나아가는 형상으로서 웅대하고 수려하여 변화가 있고 생기발랄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길하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穴場주위의 지형·지물은 사신사외에도 많고, 또 得 [吉] · 害 [凶] 가 되는 砂로 뒤섞여 있기 때문에 좋은 터를 판별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그러므로 살기 좋은 터를 결정하는데는 사신사를 우선 검토하고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곳을 찾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혈장을 중심으로 모양이 수려·단정하고, 밝고 맑으며, 유연하고 중첩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룬 산들이 둘러쳐져 있는 것이 좋은 터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물과 산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相補하며 음양이 和해야 생기가 충만해진다고 한다.

물은 산세 및 주변의 지형·지세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물이 맑고 그 흐름이 급하지 않으면서도 곡선을 그리며 흘러야 한다. 또한 국내로 흘러 든 물이 급히 수구를 향해 빠져나가지 않도록 내득수와 외득수, 내파구와 외파구가 견실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정말로 좋은 터가 되는 것이다.

(3) 혈과 향이 좋은 터

穴은 풍수의 核으로서 氣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때문에 전술한 바와 같이 혈은 산 <看龍> 바람 <藏風>, 물 <得水> 은 물론 坐向과도 모두 잘 조화되어 균형이 이루어져 안정된 곳이어야 한다. 定穴法⁴²⁾은 흔히 죽은 자를 위한 음택을 주로 하고 있으나 음택과 양택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양택에 적용하고 있다.

실제 삶의 터인 陽宅에 있어서도 집, 집터가 혈장이 되는 것이다. 또한 혈을 살필 때에는 조산, 명당, 장풍, 득수 등 혈장 주위의 산세와 지형, 지물, 물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坐向은 혈을 중심으로 하여 뒤쪽을 坐, 앞쪽을 向으로 하여 산세나 지형·지물, 물

41) 經曰(藏經) 氣乘風則散界水則止

42) 혈을 정하는 그 준거에 따라 朝山정혈법, 明山정혈법, 分水·合水정혈법, 天心十道정혈법, 水勢정혈법, 樂山정혈법, 鬼山정혈법, 龍虎정혈법, 向背정혈법, 纏護정혈법, 蟬翼정혈법, 盾氈정혈법, 當坂정혈법, 三勢정혈법, 三停정혈법, 藏神伏殺法으로 나누고 있다.

의 흐름; 看龍, 藏風, 得水, 形局 등을 살피고 혈을 차지할 사람의 四柱와도 관련하여 좌향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살기 좋은 터의 좌향을 살필 때에는 일조·일사량, 계절풍, 자연재해, 지역 특산물, 교통 등을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좌향의 조건을 보면⁴³⁾,

첫째, 背山臨水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형이 남쪽으로 경사가 저서 물이 잘 빠지고 충분한 햇빛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앞쪽에 넓은 들과 강이 펼쳐져 있어 생산품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후좌우에 산이 펼쳐지고, 흘러드는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산수의 배열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사람이 쉽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

2) 陽宅의 조건

(1) 양택의 기본논리

인간은 자신의 삶을 보다 가치있게 하기 위하여 집을 지어 왔다. 집은 생명과 생활을 지킬 수 있는 장치이고 가족생활의 근거지로서 삶의 중심무대이며, 자신과 가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구현하기 위해 집을 지어왔다. 그러한 집을 짓기 위하여 자연에 순응하는 음양오행의 이치에 맞아야 부귀는 물론 자손이 번창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풍수가 자연의 섭리를 이용하고자 한 것으로서 양택의 기본논리도 좋은 집터는 땅기운이 좋고 안정된 곳으로서 맑은 공기와 깨끗하면서도 풍부한 물이 있으며, 일조시간이 길고 양지바른 곳이다 라는 것이다.

집은 공기의 소통과 찬바람을 막고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때문에 집터는 북, 북서쪽을 坐로 남, 동남을 向으로 하여 집은 따뜻한 곳에 지어야 한다. 生氣는 땅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도 받는다. 모든 생물은 햇볕⁴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이 잘 드는 곳, 陽氣가 일어나는 아침 햇볕이면 더 좋은 곳이다.

다음은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라도 주위의 환경과도 잘 어울리면서도 균형을 이루어 안정감이 있어야 하고 용도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⁴⁵⁾

43) 李台熙, 심송지, 참나무, 1998, p.p.74~75.

44) 햇볕 뿐만아니라 햇빛, 햇살을 말한다.

그 다음은 삶의 무대이며 성장의 요람인 집은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안정과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곳으로서⁴⁶⁾, 이웃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면서 인근지역과의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2)地勢·土質의 조건

四神砂; 청룡, 백호, 현무, 주작의 상징적 의미와 배경 및 형국, 좌향론을 준거로 양택에서도 宅地의 모양 및 위치에 따라서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① 지세와 바람

양택에서 햇볕과 물·바람을 거론하게 될 때, 東은 靑龍 西는 白虎, 南은 朱雀, 北은 玄武의 형국이어야 길지라는 것이다. 즉 집터의 중앙에서 동쪽엔 물이 흐르고, 서쪽엔 큰길, 남쪽엔 平地로 트여야 하고, 북쪽에는 산이나 언덕이 있어야 한다⁴⁷⁾는 것이 풍수의 정론화가 되었다. 그런데 집 한 채를 짓거나 살 경우 이런 조건을 갖춘 좋은 터를 구하기는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때문에 참고로 하여 陽地바른 곳을 찾다 보면 북쪽이 높거나 서쪽이 높은 집터를 고르게 된다. 평지가 아닌 한 모든 택지는 어느 한쪽으로 경사지게 되는데 이 때 북쪽만 높은 곳은 北風은 막아 주지만 西風은 막을 수 없고, 서쪽이 높을 때 서풍은 막을 수 있지만 북풍을 막는 지세는 못 된다. 특히 겨울의 찬 北西風을 막기 위하여 北西쪽이 높고 南東쪽으로 경사진 곳이 가장 좋다.⁴⁸⁾ 각종 난방설비를 이용하더라도 집터 자체의 북쪽과 서쪽, 북서쪽이 낮은 곳⁴⁹⁾의 집은 헐벗은 사람꼴로 寒氣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② 지세와 햇볕

背山臨水의 지세는 결국은 北高南低의 지세로서 햇볕을 받음으로써 陽氣를 보전하는 집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택지난이 심한 오늘의 현실로 이것저것 따지기는 힘들다. 그러나 사람은 생리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햇볕을 멀리하고는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없다.

李重煥의 擇里志에서도 “最忌四山高壓日晚出而早入夜或不見北斗靈光”이라 하였다.⁵⁰⁾ 이러한 조건은 한랭한 겨울바람을 막아 집을 감싸줌과 동시에 陽光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 계절의 변화에 따르는 日射量 및 日照

45) 이때 택지의 형태 뿐 아니라 건물자체에도 해당된다

46) 택리지에서의 「山水」의 개념이지만 특히 집앞의 전경이 좋은 곳을 뜻한다.

47) 때로는 동을 左, 서를 右, 남을 前, 북을 後로 보기도 한다.

48) 때문에 西高東低보다는 北高南低가, 北高南低보다는 北西高南西低가 좋다.

49) 虛하다고 하면 그로인하여 運勢도 나빠진다고 한다.

50) 卜居總論(地理), “사방이 높아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지고, 밤에는 북두성도 보이지 않는 곳을 가장 꺼리는 곳이다.”

率을 감안하여 택지의 경사도를 살펴야 한다. 경사지의 집터는 切土만으로 하지 않고 盛土부분과 切土부분으로 이루어져 整地를 해야 할 경우, 그 地盤의 안전도에 주의하여야 한다.

집의 기초가 잘못되거나, 排水시설의 불량 등으로 부실한 주택에서 생활할 경우에 인체의 생리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地勢로서 본吉凶은 현실적으로 극단적인 吉相과 凶相은 쉽게 구분된다. 얼핏 보아 경사가 그리 심하지 않은 곳을 택하고 북, 서, 북서쪽이 높은 곳은 가급적 피하고 자기집 앞쪽에 높은 건축물이 있을 때 그들이 창문에까지 드리우지 않으면 무방하다고 보면 된다.

③ 土質

집터의吉凶은 크게는 地勢로 보지만 土質도 참고로 하여 판단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집터의 토질은 생땅이어야 한다⁵¹⁾. 매립한 곳이나 폐가의 터, 기타 오물이 뒤섞인 터는 凶地로 친다. 이러한 곳에 오래 살면 유해물질이 지표로 방출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문제로 고생을 할 수 있다.

좋은 土質이란 우선 濕度를 알맞게 보존할 수 있는 흙으로서, 粘土와 砂土가 알맞게 섞인 토양으로서 자갈이 조금 섞인 곳은 무방하다.⁵²⁾ 다음은 초목이 잘 자랐거나 현재도 잘 자라는 땅, 즉 황갈색이거나 검붉은 색깔을 띤 윤기있는 흙으로 이루어진 곳은 최고의 良質토양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집터의 토질이 비가 며칠 안오면 흙먼지가 일거나, 비가 조금 오면 물을 흡수하지 못하여 질척질척하게 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변소, 우물 등이 있었던 자리위에 흙을 메꾸어 넣기만 하고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오물이 배어든 흙과 우물벽의 土石을 파낸 후 생흙으로 메꾸어야 한다. 그래도 그 위에 집은 짓지 않는 것이 좋으며, 쓰레기처리장이나 두엄 등 오염물질을 두었던 곳은 換土하여야 하고, 나무 뿌리를 남겨둔 채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은 凶運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3) 陽宅의 三要와 五實·五虛

① 陽宅의 三要

산이 많고 골짜기가 많은 우리나라에서의 양택의 중요한 조건으로서 생명에너지를 제공하는 땅, 공기, 물, 태양 등의 에너지가 우리의 생명체에 동조될 수 있는 조건의 터를 선택해야 한다. 다음에는 집이라는 입체공간에너지를 쾌적하고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별 배치구조의 설계를 잘하여 집을 짓고 산다

51) 新鮮地란 의미로서 매립지나 성토지 등을 제외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52) 둥글둥글하게 닳아서 매끈한 것이 섞여 있는 곳은 그래도 괜찮으나, 풍화가 덜되어 날카롭게 쪼개지고 부스러져 있으면 나쁘다고 한다.

면 안정되고 안락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즉, 집은 의식주를 해결하고 가족 공동체가 항시 모여 삶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서 풍수에서는 「안방, 대문, 부엌」을 「陽宅三要」라 한다.

첫째, 안방은 집안의 중심인 부부가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곳으로서 때론 가족의 식사공간이며 손님을 맞이하는 응접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가정의 중심부로서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의논하며 가족구성원의 건강과 안녕을 살피는 구실도 하고 있다.

둘째, 대문은 한 집의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울타리의 출입구이자 집안에 外氣를 들여보내고 실내의 邪氣나 탁한 氣를 밖으로 내보내는 첫 관문이다. 때문에 출입문으로서 같은 구조에 같은 방향의 집이라도 대문의 위치가 다르면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셋째, 부엌은 온 가족이 생활하기 위한 건강의 근원으로서 삶의 원천인 영양소를 공급하는 공간이며 주부가 오래 머무는 곳이다. 부엌은 양기가 충분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현관이나 응접실 바로 옆은 좋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이 좋다.⁵³⁾

안방, 대문, 부엌의 양택삼요가 주택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어느 방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東舍宅과 西舍宅으로 나눈다.

즉 북[坎], 동[震], 동남[巽], 남[離]의 4방위에 대문, 안방, 부엌이 있을 때를 「東舍宅」이라고 한다. 또 북동[艮], 북서[乾], 서쪽[兌], 남서[坤]의 4방위에 三要가 배치된 때를 「西舍宅」이라 한다.

東·西舍宅의 양택삼요 방위가 음양오행상으로 조화를 이룰 때는吉하다고 하고 그렇지 않을 때와 삼요의 어느 한곳이 다른 방위와 섞여 있을 때, 즉 대문은 동사택의 방위에 있고 안방과 부엌은 서사택의 방위에 있을 때는凶相으로 판단한다.⁵⁴⁾

② 五實, 五虛

陽宅三要와 아울러 양택론에서 흔히 거론하는 家相의 길흉론으로서 五實, 五虛 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집터의 위치나 구조의 길흉을 따지는 가상에 있어서 가장 오래 된 문헌으로 알려진 黃帝宅經에 나오는 내용인데 五實을 갖춘 집에 사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五虛인 집에 사는 사람은 점차로 궁핍해 진다고 하였다.⁵⁵⁾

양택에서 實과 虛를 구분하여 살펴본 五實의 집으로서

53) 현관은 출입구와 연결된 외기의 통로로서, 부엌의 냄새때문이다.
 54) 이와같이 8개의 방위로서 동·서사택으로 분류하면서 家相을 판단하는 것은 「八宅家相法」이라고 한다.
 55) 황중찬, 현대주택풍수, 좋은 글, 1997, p.p. 42~47.

- 집의 규모는 작아도 아담하여 사는 사람이 많은 때
- 집의 규모에 비하여 문이 작고 아담한 때
- 담장이나 울타리가 반듯하고, 정연한 때
- 집이 자그마하면서 화초가 잘 자라고 가축이 많이 있을 때
- 물의 흐름이 동남으로 흐르는 것을 實이라 하여 계속 가문이 번창할 수 있는 兆朕으로 보았으며,

五虛의 집으로서는

- 집은 궁궐처럼 큰데 사는 사람이 적어 빈집 같은 때
- 집의 규모에 비하여 문이 크고 웅대한 때
- 담장이나 울타리가 기울거나 금이 가 있어 완전하지 못한 때
- 부엌의 위치, 우물 또는 굴뚝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을 때
- 넓은 대지에 작은 집이 있어 마당이나 정원이 너무 클때를 虛라 하여 이러한 모습의 집은 차츰 가문이 기울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받는 집이라 하였다.⁵⁶⁾

이처럼 과분한 공간을 차지한다거나 적절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록 많은 재물을 모아 마련한 집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기울게 된다는 것으로서 주택의 실제 공간과 적절한 인원 수,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다룬 것이다.

IV. 結 語

좋은 터 즉, 인간이 살기 좋은 곳은 시대와 상황이 변해도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곳은 口承되거나 때로는 秘訣, 秘記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아직도 檢證을 거치거나 체계적인 연구도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지만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남아 삶에 대한 希望과 意慾을 북돋워 주는 활력소의 역할을 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살기 좋은 곳에 관한 준거나 조건 등은 의외로 先人들의 생각이 오늘에도 유용함을 알 수 있으며, 住居立地로서 좋은 터의 조건은

첫째, 背山臨水의 지형으로서, 충분한 햇볕과 맑은 공기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다.
둘째,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고 약간의 경사가 이루어져 앞은 낮고 뒤가 높은 곳 [前低後高] 이다.

56) 임준, 좋은주택 좋은 배치, 한국자료정보사, 1993, p.p.67~69.

셋째, 폭풍우나 홍수, 흑한,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곳이다.

넷째, 식수나 생활용수를 쉽게 얻고 흘려 보낼 수도 있는 물이 풍부한 곳이다.

다섯째, 농·수산물, 공산품 등 생활용품의 취득이 용이하고 문화, 문물을 쉽게 접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곳이다.

여섯째, 산천이 조화를 이루어 인간의 심신을 안정, 순화시킬 수 있는 곳이다.

이상과 같은 좋은 터를 정하는 일반적인 조건들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을 터전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풍수의 術士들은 말하고 있다.

살기 좋은 곳, 좋은 터의 풍수적 논리는 看龍, 藏風, 得水, 定穴, 坐向, 形局을 고려하여 陽宅을 정해야 한다.

즉 풍수의 양택원리를 좋은 터를 정하는데 이용하려면 地勢, 산천과 지형을 살핀 다음 주위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룬 안정된 곳을 찾아서 陽宅三要訣에 따른 주택의 배치와 구조를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